

경기도정에 생성형 AI 도입방안 모색

경기도 정책토론회대축제 AI 순기능 최대화 논의

박상현(민주당, 부천8)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정의 생성형 인공지능 적극 도입 방안 및 사례'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회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하 경기연구원 AI 혁신정책센터장이 발표했으며 토론회로는 최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최정석 경기도 기획전략담당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원중 AI산업팀장, 이정희 산업화지원팀장, 허은영 라이프시맨틱스 R&D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의 전자정부 도입이 행정 절차를 간편화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하 AI 혁신정책센터장은 경기도 소속직원(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성형 AI 활용 실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경험이 있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정의 생성형 인공지능 적극 도입 방안 및 사례'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박상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329명의 직원 중, 194명(59%)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며 "한국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최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83.1%가 행정·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무려 87.2%에 달하는 도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도입된 인공지능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정석 기획전략담당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도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정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사업을 소개했다.

정원중 AI산업팀장은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인력·데이터·반도체 등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이며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제과학진흥원의 AI산업팀은 경기도

에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산업화지원팀장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와 학습 데이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하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은영 R&D센터장은 "카카오 헬스케어의 초고도 인공지능 서비스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소아 질병 예측 및 실시간 상담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통해 향상됐음을 경험한 바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해 도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적극 도입에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인력 고도화와 더불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기술 실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는 디지털 플랫폼의 개방, 일상화된 효율성,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프라와 생태계 제도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형 인공지능정부법을 발의 위한 첫 단추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의 순기능은 최대화,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창 기자

의회 단신

인천 부평구의의회 하반기 의장단 구성

의장에 안애경 의원 부의장 유정옥 의원

인천 부평구의의회는 1일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9대 하반기 의장에 안애경(민주당) 의원, 부의장에는 유정옥(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안애경 의원은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주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 사항을 충분히 협의, 민주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의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모범적인 선진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안애경 의장 유정옥 부의장

밝혔다. 또 유정옥 부의장은 "의원 상호 간 소통과 협치를 중시하고 집행부에는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이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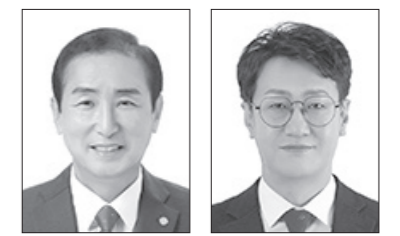
인천 강화군의의회 의장단 선출

의장에 배충원 의원 부의장 한승희 의원

강화군의의회는 1일 제296회 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제9대 하반기 의장으로 배충원(국민의힘) 의원, 부의장에 한승희(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배충원 의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초심을 잃지않고 군민의 편에서 함께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군민들과 소통을통해 군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표결과는 총의원 7명(민주 2명, 국민의힘 5명)중 찬성 6표 무효1표로 의장 부의장을 1차투표에서 결정



배충원 의장 한승희 부의장

했다. 의회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선출된 배충원 의장은 제4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배정만 의장과 부자관계로 우리나라 의정사상 최초로 부자간 의장이 탄생했다고 전했다.

또한 배 의장은 최근 지방의정봉사를 수상하는 등 앞으로의 강화군의의회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유지남 기자

동두천시의의회 의장단 뽑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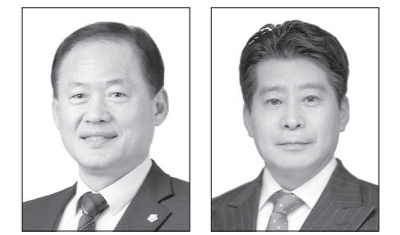
의장에 김승호 의원 부의장 황주룡 의원

동두천시의의회는 지난달 28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하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서 김승호 의원이 의장으로 황주룡 의원이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두 의원 모두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의장단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으며 이번 하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됐다.

김승호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동두천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김승호 의장 황주룡 부의장

동두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주룡 부의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동두천의 변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의회는 이번 하반기 의장단 선출을 통해 의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대 기자

인천시 지역출판 진흥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선옥 인천시의의회 의원 발의 지역 정체성·역사와 문화 공유

인천시의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인천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

과했다. 지역에 위치한 출판사가 지역 작가와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책으로 출간하는 형태의 지역출판은 인천시 지난해 기준 2193개의 출판사 등록, 매년 수십여개의 출판사가 등록하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 출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과 실행조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담았다. 조례안 통과로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및 문화를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인천시는 전국에서 출판사 등록현황이 경기·부산에 이어 인천

순으로 매년 많은 출판사가 등록을 하고 있지만 폐업도 많은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의 출판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민의 공감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열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본격 활동

"도민이 행복한 미래는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래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민주당(대표의원 최중현, 수원7) 하반기 대표단이 현충

탑 참배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중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1일 오전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시 현충탑을 방문해 현화와 분향 등을 하면서 순국선열 앞에서 도민을 위한 후반기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경기도의회 민주당

당 하반기 대표단의 첫 공식 일정이다.

참배에는 최중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부대표,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 김광민(부천5) 입법지원추진단장, 김옥순(비례)·변재석(고양1)·유경현(부천7)·이자형(비례)·이진형(화성7)·장민수(비례)·장윤정(안산3)·조미자(남양주3)·조용호(오산1)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중현 대표의원은 참배를 마친 후 방

명록에 "경기도민의 행복한 미래 민주당이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적고 11대 의회 하반기 대표단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표단을 맡아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립과 갈등·정쟁을 걷어내고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의 민생회복과 행복을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김인창 기자



옥외광고 LED전광판

수도권 전역 광고주와 소비자를 직접 이어 드립니다.
서울시청·명동·동대문·종로3가·강남·홍대 등 다수지역 송출



문의 032)508-0006

일간경기 영상사업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7, 1147~1150호(청천동, 제이타워3차)